

목포시, 수돗물 탁수 해결 절수 동참 당부



겨울 계절적 특성에 한파까지 겹쳐 사용량 초과 원수 물량 조절·상수도관 이물질 배출작업 실시

목포시가 최근 발생한 수돗물 탁수 현상 해결을 위해 절수 동참을 당부했다.

목포시는 “수돗물 탁수 현상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드린다”면서 “시민 모두가 절수를 실천하는 것이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다.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시도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목포시에서는 영암·북항·연산동 등 원도심권 일부지역에 탁수가 발생했다.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겨울의 계절적 특성에 더해 최근 유례없는 한파(21.18~1.10)에 따른 육내누수 등까지 겹치면서 사용량 초과(평소 사용량의 1.6배)로 유량과 유속이 바뀌면서

송수관 협착물 일부가 이탈한 것이 탁수의 원인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원수 물량 조절, 급수관 누수 방지, 상수도관 이물질 배출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수질 정상화에 대응하고 있다.

겨울철 수돗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목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목포 인근 지자체들에서는 단수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하며 최대한 많은 용수량을 확보해 수돗물 공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

목포=박정수 기자



신안군, 1도 1뮤지움 중심에 선다

둔장해변에 ‘인피니도 뮤지움’ 건립 예정...관광산업 부흥 기대

1004섬 신안군은 핵심전략사업 1도 1뮤지움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인피니도 뮤지움’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14일 밝혔다.

신안군 자은면 둔장해변에 건립 예정인 ‘인피니도 뮤지움’은 새로운 미술 장르인 야외조각과 미디어 전시콘텐트를 통해 지속적인 관람 동기를 부여하고, 예술가의 창작지원에 기반하여 국제레지던스 미술관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인근 관광자원으로는 무한의 다리, 둔장해변, 신안자연휴양림이 있고 리조트 및 호텔 2개소가 건립 중에 있어 지역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부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신안군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은 각 섬 주민들의 문화복지와 경제유발효과 및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갈 중심 사업으로 미술관 박물관을 꼽았다. 최근 자은에 문을 연 ‘둔장마을 미술관’이 좋은 사례다.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은미술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안군은 마을주민들의 뜻에 따라 노후 된 마을

회관을 리모델링해 ‘둔장마을미술관’으로 오픈했다.

둔장마을회관은 1970년대 초반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마을 사람들이 직접 나무와 모래를 나르고 벽돌을 올려 만든 공간으로 50년 동안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에 사용됐던 마을의 중심공간이었으나 건물이 노후되어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곳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신안군의 노력으로 50년 만에 미술관으로 재탄생돼 마을 사람들의 사랑받는 중심공간으로 다시 자리 잡게 되었다.

신안군 1도 1뮤지움은 100년 이상 교육의 요람이었던 학교를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각 섬에는 육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우리 문화와 섬 고유의 문화유산들이 귀중한 자산으로 남아 있다. 그 중심에 ‘학교’가 있다. 신안군에서는 섬마을 빈 학교를 매입하여 그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여전히 가치 있는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 등으로 재생하여 의미 있는 공간으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김종식 목포시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시민이 중심되는 새로운 미래 목포시가 열려갈 것”

김종식 목포시장이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 시민이 중심되는 새로운 미래 목포시가 힘차게 열려가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피켓 사진을 게재하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어 김 시장은 “작년 12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방자치의 더욱 성장하며, 자치분권을 통해 시민의 꿈이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미래, 목포시가 힘차게 열려가

겠습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과 권오봉 여수시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전동평 영암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박창수 목포시의회의장을 지명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자치경찰법이 국회를 통과



한 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시작했다.

김정환 기자

영암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일수 증가 및 매년 관행적 무단소각으로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및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이 산발발생요인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영암군은 11개 읍·면 마을별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통해 봄철 산발소각기간(2월 1일 ~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선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은 읍면 소재 각 마을이 참여(주민 전체 사전동의)하여 서약서 양식에 따라 마을대표가 직접 서명을 통해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발발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하는 활동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영암군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실천으로 산발제로에 도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군 “29일까지 식량·원에 분야 지원사업 접수”

농가 경제적 부담 완화

함평군은 식량·원에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도 식량·원에 분야 지원 사업을 이달 29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군은 ▲소형농기계 구입 ▲원예작물용 관정 지원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등 식량·원에 분야와

관련된 총 40개 사업에 362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딸기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농·축산물 덤프운반장비 지원 등을 신규시책으로 추진, 고품질 딸기 생산기반 조성과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함평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

인·농업인단체로 세부사업별 명시된 신청자격과 필수 요건 등에 부합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최종 지원 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한 현장 확인과 함평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함평=김광춘 기자

무안군,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182억 원 달성

무안군이 지난해 지역농특산물 온·오프라인 매출 182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실적인 124억 원에 비해 46% 증가한 액수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종 지역축제 취소와 관광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흡수평,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힘쓴 결과이다.

군은 지난해 농수산물 판매를 위해 비대면 유통채널을 구축하여 우체국쇼핑몰과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서울상생상회와 협력하여 라이브커머스로 생방송을 진행하는 등 언택트 소



비 확산에 발빠르게 대처하였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광군, 축산진흥·가축방역 지원사업 박차

영광군은 환경친화형 축산 육성 및 AI·구제역 등 가축질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78개 사업에 총 130억원을 투입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축산농장 약취저감 사업 ▲친환경축산육성 사업 ▲고품질 축산물 생산사

업 ▲가축질병 예방 사업 등이다.

이를 위해 2021년 축산진흥·가축방역 분야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 읍·면 및 축산관련 유관단체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년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사 사업장 소재 읍면에 가서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2월 3일까지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